기독교대한감리회
교 육 국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제17차 감리교청년주일 지침서

Contents

1	제17차 청년주일 목회서신
2	제17차 감리교청년주일을 소개합니다.
3	제17차 감리교청년주일, 이렇게 지켜주세요!
6	청년연합회 조직하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8	청년주일 모범예배
10	청년주일 모범설교 1
15	청년주일 모범설교 2
19	청년주일 기도문
20	청년주일 성경공부
22	감리교청년회 전국연합회를 소개합니다.

제17차 청년주일 목회서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용재

오는 9월 25일(주일)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정한 제17차 청년주일(주제: 청련사이다)입니다. 바라기는 전국의 모든 감리교회가 청년주일을 거룩히 성수함으로써, 오늘의 주인이요 내일의 주역인 청년들을 향한 커다란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청년선교에 대한 새로운 부르심과 열정을 뜨겁게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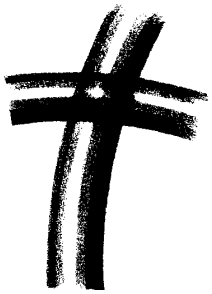
우리 감리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엡웟청년회를 조직하여 뜨거운 신앙으로 교회와 민족의 내일과 희망을 가꾸어 왔습니다. 청년주일을 지키는 일은 바로 청년처럼 건강한 몸과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려는 고백입니다.

청년없이 교회의 내일이 없음은 명약관화합니다. 지금은 청년 세대에 대한 선교적 과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모든 교회적 관심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젊은이가 없는 교회는 희망이 없고, 청년세대에 투자하지 않는 교회는 내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어우러지고, 연륜과 패기, 전통과 비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이셨습니다. 청년들의 눈으로 오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청년들의 관점에서 교회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명의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모든 감리교회가 청년주일을 지킴으로써 초대교회와 같이 순수하고 신실한 신앙을 회복합시다. 새로운 시대에 열심히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신앙으로 양육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감리교회를 푸른 교회로, 푸른 신앙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17차 청년주일을 맞이하여 청년들이 각자의 존재와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17차 청년주일과 같이 하셔서 감



제17차 감리교청년주일을 소개합니다.

1987년 엡윗청년회에서 시작된 감리교청년선교는 한국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왔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감리교청년들은 조국의 독립과 민중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에 감리교청년들의 헌신과 열정적인 신앙을 통해 부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주일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감리교청년들이 하나님의 정의, 평화, 창조질서가 보존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나고, 감리교신앙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며, 청년선교의 비전을 마음에 깊숙이 새기는 주일입니다. 또한 감리교청년을 향한 교회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의 지위 향상과 청년선교 활성화를 위해서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1999년 12월 13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매년 9월 넷째 주일을 감리교청년주일로 제정하여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17차 감리교청년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청년주일을 모든 감리교회가 지킴으로 각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감리교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1. 일시 : 2016년 9월25일(주일)

2. 주제 : '청련사이다'

3. 주제말씀 :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하심이라" (누가복음 4:18~19)

4. 주제해설 : 비정규직, 취업대란, 삼포세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들은 하나같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함의 연속인 청년들에게 교회는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쉼터가 될 수 있을까요? 2016년 9월 25일, 제17차 감리교청년주일이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가슴을 뻥 뚫어줄 시원한 청년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17차 감리교청년주일, 이렇게 지켜주세요!

1. 2016년 9월 25일(주일) **낮 예배를 청년주일**로 지켜주세요.

-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청년선교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청년주일 예배문과 기도문을 사용해주세요.
- 청년들을 축복하는 중보 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 청년주일 성경공부를 진행해주세요.

2. 청년주일 **포스터를 부착**해주시고 9월 넷째주가 청년주일임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세요.

3. 청년주일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 시원한 청년주일을 꿈꾸자

청년회사역자 및 청년회임원들이 모여 여러분들만의 특별하고 시원한 청년주일을 기획하세요. ex) 영화 단체관람, 예배 후 나들이, 청년회주최 예배, 가을운동회, 청년들이 할 일 없는 주일, 예배 후 사이다 한 캔 등등

- 시원한 청년주일을 보내자

2016년 9월 25일, 드디어 청년주일! 이제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청년주일을 맞이하세요.

- 우리들만의 청년주일을 인증하자

여러분들만의 특별했던 청년주일을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 페이스북에 사진, 동영상 등으로 자유롭게 인증해주세요. ※ 이벤트 페이지주소 : https://www.facebook.com/youthsunday94

4. **청년주일 지침서**, 웹자보, 청년주일 지침서 등 각종자료들은 www.myfk.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년들의 생활과 신앙의 고민을 풀어갈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세요.

6 **청년주일 헌금**은 교회 청년들을 위해 사용해주시고, 일부를 청년회전국연합회에 보내주세요. 전국연합회로 보내주신 청년선교헌금은 청년지도력육성, 감리교청년 국제지도력 육성에 쓰여집니다. ※ 보내실 곳 우리은행 142-422823-13-001(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17차 감리교 청년주일

"답답한 청년들의 가슴을 뻥~ 뚫어줄 청년주일!"

청련사이다

★ 2016년 9월 25일은 감리교 청년주일 입니다.★

주최 :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 문의 : 02-399-2086

가슴을 뻥~ 뚫어줄 청년들의 사!이!다!! 일탈!!

1. 시원한 청년주일을 꿈꿔라!!
-청년회사역자 및 청년회임원들이 모여 여러분들 만의 특별하고 시원한 청년주일을 기획하세요.
ex) 영화 단체관람, 예배 후 나들이, 청년회주최 예배, 가을운동회
청년들이 할 일 없는 주일 예배 후 사이다 한캔. 캬~!

2. 시~원한 청년주일을 보내라!!
-2016년 9월 25일, 드디어 청년주일! 이제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청년주일을 맞이하세요.

3. 우리들의 청년주일을 인증하라!!!
-여러분들만의 특별했던 청년주일을 감리교청년회 페이스북에 사진, 동영상 등으로 자유롭게 인증해주세요.

4. 청년주일을 가장 시원하게 보낸 교회에는
감청에서 특별한 선물을~ 쏩니다!!!!

감리교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날, "청년주일"이 옵니다.
함께해요~ Go Go!!!!!

청년주일에 드려진 헌금의 일부를 꼭! 감리교청년회 전국연합회에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헌금은 감리교청년 선교와 지도력 향상에 쓰입니다.
142-422823-13-001(우리은행: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

주최 :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 문의 : 02-399-2086

청년연합회 조직하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최근 몇 년간 교단 안에서 '감리교의 위기'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기를 정직하게 받아드린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감리교단은 위기가 오히려 일상화되어 위기를 극복할 의지마저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감리교의 미래세대인 감리교청년들의 교단에 대한 애정이 이미 식을 대로 식었다는 사실입니다. 감리교청년회는 이 위기의 출구를 '연합'이라고 잡았습니다. '연합'의 가치를 다시 세움으로써 감리교단 안에 공교회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첫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연합운동이 청년세대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 청년연합회 조직하기 ◀◁◀

Step 1 지방 청년들끼리 만나게 해주세요.

지방청년들의 스스로 연합 모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크고 작은 자리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만나 서로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교회 목회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방청년들 간의 만남과 교제의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청년들로 하여금 연합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2 비전을 심어주세요.

지방청년들이 청년연합회를 통해 어떤 꿈을 꿀 수 있는지 조언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연합모임을 논의하고 서로의 비전들을 연합회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함께 연합의 꿈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들을 엮어내어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Step 3 모임을 공식화해주세요.

연합회구성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면, 이제 모임을 공식화해주세요. 지방에 소속된 각 교회의 청년임원들을 소집해주시고 총회를 열어주세요. 임원을 선출하고 필요한 회칙을 만들거나, 수정하여 제정한 뒤, 비전을 가진 청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직분을 주세요. 새로 된 임원들이 처음 시작할 경우는 감리교의 구조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 임원

들이 열정을 다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감리교청년회가 출간한 임원지침서를 참고하시면 더욱 수월하게 지방연합회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Step 4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주세요.

처음 연합회 활동을 하게 되므로 연합회의 사업기획이나 진행, 예산 결정, 후원금 받기, 청년들 모아내기 등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못합니다. 지방에서 청년들의 연합활동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 주시고, 활동에 필요한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세요.

Step 5 다른 청년연합회와 연결시켜주세요.

연합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합회의 활동을 직접 보고 도전을 받아 자체적인 사업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에 조직되어 있는 연합회의 모임인 청년회 전국연합회의 모임을 통해 회의, 사업진행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얻게 해주고, 청년정책에 필요한 자료들을 얻도록 연결해 줍니다.

청년들의 연합모임이 활성화되어 감리교회의 건강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들은 감리교회의 미래이면서 동시에 현재입니다. 비록 공교회성이 상실되어가는 시기 속에서 연합의 가치와 연대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그 가치를 붙들고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 값진 일입니다.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주일 모범예배

본 예배 안은 제17차 감리교청년주일 모범예배 안입니다. 모범예배 안을 참고하시되 개교회의 상황과 재량에 맞게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기도 ····· **다함께**

(※ 종 울림과 함께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로의 초대 ····· **사회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 다함께 일어섭니다)

찬 송 ····· **다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새 찬송가 38장)

교 독 문 ····· **다함께**

인도자 :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회 중 :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인도자 :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회 중 :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인도자 :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회 중 :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인도자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회 중 :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인도자 :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회 중 :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인도자 :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회 중 :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인도자 :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회 중 :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 다함께 자리에 앉습니다.)

대 표 기 도	·····	**청년회 임원 중**
말 씀 봉 독	·····	**청년회 임원 중**
말 씀	·····	**교회 담임목사**

(※ 제17차 청년주일설교 예문을 참고하여, 청년을 위한 설교를 전합니다.)

결단의 기도	·····	**다함께**
헌금 및 특송	·····	**청년회 일동**

(※ 봉헌된 헌금은 교회 청년회를 위하여 사용해주시고, 헌금의 일부를 감리교청년회 전국연합회에 보내주세요. 감리교청년들을 위한 지도력향상과 선교 사업에 쓰입니다.)

헌 금 기 도	·····	**청년회 임원 중**
광 고	·····	**사회자**

(※ 다함께 일어섭니다.)

축복의 찬양	·····	**다함께**
축 도	·····	**교회 담임목사**
후 주	·····	**반주자**

청년주일 모범설교 1

제목 : 나는 무엇을 보는가?

출애굽기 14장 10-16절

김종남 목사(용두동청년교회)

1. 관점(觀點)이 중요한 이유

관점(viewpoint)이란 단어를 사전에서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라고 풀이합니다. 관점에 대한 뜻풀이를 통해서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해석'(interpretation)이 달라지고 그 해석에 따라 '선택'(choice)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관점, 해석, 선택'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어떤 해석을 내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질문들은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택지'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이고,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 어떤 관점에서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기본 출발점이 되는 동시에 태도나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관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서로 대비되는 관점을 갖고 있음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차이가 '해석'의 차이를 가져오고, 그 해석의 차이가 '선택'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너무나 대조적인 '결과'를 가져왔음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5절에서 9절은 그들이 놓여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고 이어지는 10절 앞부분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라는 표현은 그 상황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당시 최강의 정예군대인 바로의 병거부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턱밑까지 따라왔습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에 불과했기에 바로의 군대에 저항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물에 빠져 죽든가 애굽 군대의 칼에 죽임을 당하든가 둘 중의 하나인 상황이었습니다. 한자성어로 표현해보면 '진퇴양난'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황,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스라엘이 놓여있습니다.

2. 동일한 상황, 서로 다른 반응

그런데 이처럼 동일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전혀 다른 해석과 선택을 하는 모습이 본문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 대조되는 인물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해석과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은 그들이 눈을 들어보았을 때 그들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다고 기록합니까?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바로를 비롯한 애굽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라는 부분을 영어성경(NLT)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panicked)"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제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다음 감정은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은 그들에게 생겨난 감정이 ‘원망, 불평, 불만’임을 보여줍니다. 바로와 애굽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의 노예생활에서 해방시켜 준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온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들이 보이는 그 다음 장면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은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며 살고 싶었는데 모세가 그들을 억지로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두려움은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까지 이어집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12절)는 말씀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공포로 인해 그들이 430년간의 노예생활을 그리워하는 단계로 까지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왜 그들은 불평과 불만, 원망과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토해내고 있는 걸까요? 왜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걸까요? 그들의 시선이 바로 군대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점이 뒤따라오는 바로 군대와 앞을 가로막은 홍해바다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대조되는 모세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는 전혀 다른 감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두렵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처한 상황은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과 동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과 정반대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설사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13절 후반부와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시선이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에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호와 하나님’에 철저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13절과 14절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의 눈에는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실 ‘구원’이 모세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모세의 권면은 그의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행하시는 구원이 보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모세의 현재는 이스라엘 자손과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객관적인 현재의 상황과 형편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 즉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바로와 그의 군대에 시선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관점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차이는 해석과 선택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장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모세가 바로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과 형편, 지금 내가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은 섣불리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만히'(13절)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만히' 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 상태로, 포기한 채로 멈추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과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반응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별다른 반응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서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세를 향해 반응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행동할 것을 말씀하신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15절)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16절)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세에게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것이 참으로 간단하게 순간적으로 마술 부리듯이 된 일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홍해 바닷물이 양쪽으로 순식간에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밤새도록"(21절)과 "새벽에"(24절)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모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서서 기대하는 모세를 위해, 하나님은 밤새도록 열심히 일하십니다.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 움직이십니다. 밤새도록, 새벽녘까지 하나님도 땀 흘리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일하신다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닮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가?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로와 애굽 군대, 홍해에 고정될 때, 우리의 시선이 현재 당한 문제와 어려움에 고정되어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이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4. 나는 무엇을 보는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이 땅의 청년들, 특히 기독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7년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20대의 특성을 규정지으려는 담론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2-30대 젊은이를 표현하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 등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그 용어들이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 저축을 포기한 축포세대, 연애, 출산, 결혼을 포기한 3포에 인간관계와 집을 추가로 포기한 5포 세대, 그리고 여기에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 그리고 최근엔 모든 것을 포기한 N포 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희망과 비전을 품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절망과 안타까움이 담긴 '헬조선'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기독청년들의 몸과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과 같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와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문제 그 자체를 바라봐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하고 그 두려움은 불안과 염려로 이어지고, 마침내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관점이 믿음에 근거한 모세의 관점을 본받게 될 때, 우리는 불안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대하심에 근거하여 팔을 뻗어 홍해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드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 그가 과연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실 것을 꿈에라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갈라진 홍해바다로 그들은 건너가고 바로와 애굽 군대는 다시 흐르는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을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못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홍해의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실 것을 모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

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 관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움에 넘어지는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를 체험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관점을 가진 믿음의 청년을 찾고 계십니다.

청년주일 모범설교 2

제목 : 지금은 상어시대

마태복음 25장 14-30절

이진경 목사(협성대학교 교수/교목)

"나도 젊었을 때는 데모도 열심히 하고 불의에 대항해서 치열하게 싸웠지..." "나도 젊었을 때는 열정이 있었지..." "나도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세월을 다 보낼 정도로 신앙에 열심이었지..." 자신은 청년을 벗어났다고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가끔씩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수와 열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말들이지요. 그러나 "나도 젊었을 때는..."이나 "나도 한때는..."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곧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더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은 그 말 뒤에 숨겨진 변명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 상쇄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비겁한 마음가짐이야말로 가장 화를 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청년기라는 말을 대략 20대에서 30대까지의 시절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곤 합니다. 이 청년의 시절은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통과해버리는 터널 같은 것일까요? 한때의 순수와 열정을 경험하는 곳이고, 일단 그 시절을 지나고 나면 한없이 세상의 때를 묻혀가도 좋은 시절일까요? 청년의 때가 그런 시절일 리 없습니다. 청춘의 시대는 결코 청춘을 지난 뒤의 변명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청년의 때는 한 번 순수로 불타오르는 때가 아니라, 앞으로 내내 타오를 순수의 불을 처음으로 지피는 때라고 해야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청춘시대는 모든 실수와 실패가 용인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처음이니까, 모든 것이 미숙하니까, 실수와 실패는 용인되고 심지어 미덕이 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이 참담한 시대는 실수와 실패가 청춘의 미덕이라는 말이 통용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패가 미덕이라는 말은 오직 그 실패가 짧은 시간으로 그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서나 가능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끝도 보이지 않는 좌절과 실패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통과해야 하는 현재의 시간은 과거 세대의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면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취직을 하느냐가 문제였지 취직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비정규직과 취업대란의 현실에 직면한 청춘은 88만원 세대라는 말 속에 갇혀버렸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삼포세대는 거기에 내집마련과 인간관계를 더한 오포를 넘어 결국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칠포세대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이 포기의 목록에 건강과 외모를 더한 구포까지 얘기하는 실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청춘(靑春)이라는 한자 속에 담긴 봄은 무색해진 지 오래고, 지

금은 끝도 보이지 않는 겨울이니 청춘이 아니라 청동(靑冬)이라고 해야 맞을 지경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저 유명한 책제목의 말도 지금은 청춘은 개뿔, 아프면 환자밖에 더 되냐는 빈정거림 속에 파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청춘시대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청년을 생각하다가 문득 상어를 떠올렸습니다. 얼마 전 포획의 잔인성과 멸종 위기로 인해 금기시 되어가는 고급요리 샥스핀을 청와대가 오찬 요리로 삼아 세간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지요. 연골어류인 상어는 아가미에 근육이 있는 경골어류와는 달리 아가미에 근육이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아가미를 움직일 수 없는 상어가 산소를 얻으려면 직접 몸을 움직여 아가미에 물을 통과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상어는 부레도 없습니다. 부레를 지닌 대부분의 물고기들처럼 저절로 물에 떠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상어는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숨을 쉴 수도 없고, 물에 떠있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어는 깊은 잠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잠들어 움직임을 멈추면 죽어버리니까요. 잠을 잘 때조차 의식이 남아 있는 가수면 상태로, 자면서도 헤엄을 쳐야 하는 옅은 잠의 상태로만 잠을 잡니다. 실제로 상어가 느끼는 사정이야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어의 모습은 늘 피곤에 지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그나마 생존이 가능한 지금의 청춘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살아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지금 청춘의 모습에 자꾸만 안쓰러운 상어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강박적 강요가 유효한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청년에게 이런 식의 정신무장을 요구하기 일쑤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식의, 현실을 무시한 낭만적 환상에 근거한 강요말입니다. 금수저, 흙수저 같은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으로 돌파해야 할 개인적 문제라고, 의지가 박약한 자들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고, 지금 같은 시대일수록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과연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강요와 환상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서 그렇듯이 사회적 편견이나 압박은 교회가 주는 그것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절망적인 세상의 강요를 피해 들어온 교회에서마저 이런 식의 강박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위로 받아야 할 곳에서 뺨을 맞는 격이겠지요. 교회에서마저 그저 기도하면 모두 잘 될 거야라는 식의 대답을 듣는다면, 그 말이 과연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어쩌면 오늘의 본문은 그 해답의 단초를 제공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입니다. 일견 달란트 비유의 시작을 보면 꼭 현재 한국의 차별적 상황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 누구에겐 다섯 달란트, 누구에겐 두 달란트, 누구에겐 한 달란트라뇨, 이거야말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가 아닌가요? 세상에, 하나님마저 이런 식으로 차별하신다는 말입니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본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달란트의 정확한 가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행사마다 달란트 시장이 열리고 그것으로 잡다한 물품들을 교환하다 보니 사람들은 달란트의 가치가 일이천 원이나 많으면 몇 만 원쯤으로 생각하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달란트의 실제 가치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과는 막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달란트는 화폐단위가 아니라 무게단위입니다. 그리고 1 달란트는 약 26~36 킬로그램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금 1 달란트라면 대략 금 30 킬로그램, 현금화 해본다면 5억 원을 육박하는 실

로 어마어마한 액수가 됩니다. 재능을 의미하는 탤런트(talent)의 어원이기도 한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 달란트의 가치로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아무리 적게 받은 자도 이미 넘칠 만큼 충분히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소 지엽적일지는 모르나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야기 속 실패한 자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 1 달란트, 즉 30 킬로그램의 금을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책망과 벌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종이 책망을 받고 벌을 받게 된 이유는 본질적으로 그가 자신이 받은 것으로 이윤을 남기지 못 해서가 아닙니다. 이윤을 남기지 못 해서가 아니라, 즉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무 것도 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모든 일이 그렇듯 비유 역시 성공을 목표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더 물량적으로 큰 성공을 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맥락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는 누가복음(눅 19:11-27)과 달리 마태복음 이야기 속 주인은 다섯 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종과 두 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종에게 똑같은 말의 칭찬과 똑같은 내용의 보상을 약속합니다.(21절,23절) 칭찬의 이유는 두 사람 모두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두 사람이 장사로 손해를 보았다면 책망과 벌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칭찬의 여부는 그들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건대 주인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로하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쯤이야 괜찮다. 그래도 너희들은 적은 일에도 충성했으니 내 마음이 정말 기쁘구나." 아마도 이렇게 말입니다.

바로 이 위로와 칭찬이야말로 지금의 청춘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질만능과 성과제일주의 사회 속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우리의 청년들은 마치 삶의 피곤을 무릅쓰고 잠결에도 헤엄치는 상어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가라앉아 죽지 않기 위해 오늘도 쉴 새 없이 꿈틀대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로 오르기는커녕 겨우 제자리에서 살아내기도 벅차하면서 근근이 오늘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 버팀 앞에 어쩌면 지금은 허망한 약속을 남발할 때가 아니라 진심어린 위로가 필요한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고자 꿈틀대고 움직이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잘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견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얼 잘 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무언가 해내려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아등바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버티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상어시대니까요. 그러니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헤엄을 멈춰 절망 속으로 침몰하지 않으려고 뭐라도 하고 있는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십시오. 거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그러실 것처럼 "잘 할 필요 없어,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데, 넌 참 대견해."라고 말해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은 지금의 시간을 버티는 가장 효과적인 길일지도 모릅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들이 흔히 만나게 되는 그 누구처럼 잘 하라고, 해내라고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네게 준 달란트로 이윤을 남겨오라고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저 뭐라도 하고 있는 여러분을, 아니,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전 3:1-8)

지금은 분명 어둠의 때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때의 최선은 태양이 뜰 때까지 버티며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이 힘겨운 어둠의 시절을 버티며 통과하는 청년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주일 성경공부

주제 : 청년사이다

STEP 1 마음 열기

1)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에게 하루가 선물로 주어진다면?”
2) 함께 모인 사람들과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STEP 2 짐 내려놓기

※ 준비물 : 큰 전지, 검은 펜, 크레파스, 사인펜 등
1) 큰 종이를 위에 나의 삶을 답답하게 하는 것들을 함께 그려봅시다.
2) 그리고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3) 이제 그림을 고운 색깔로 칠하고, 답답함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적어봅시다.

STEP 3 말씀 속으로

1) 다음의 말씀을 침묵하며 묵상합시다.

이사야 61장 1-3절
1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2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 묵상한 것을 모인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 이야기 길잡이 : 이사야 61장 1-3절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사역과 사명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메시아란 이 땅의 불의와 폭력을 끝내고, 정의를 바로세우며 구원을 도래시키는 존재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억압 받는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며, 불의가 팽배한 이 땅에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답답한 우리 시대, 예수님은 여전히 '희망의 메시아'입니까? 답답하고 희망 없는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은 여전히 '희망의 메시아'입니까?

STEP 4 희망 찾기

※ A4 용지, 검은 펜, 크레파스, 사인펜 등
1) 각자 종이 위에 나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2) 종이 위에 그려진 '나'에게 가슴 뻥 뚫어줄 시원한 말을 적어봅시다.
3) 다른 사람들의 그림에도 가슴 뚫리는 시원한 격려의 말을 적어주세요.

STEP 5 새 삶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희망이시듯,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 땅에 희망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이 땅의 희망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STEP 6 기도하기

※ 돌아가면서 모두 한 마디씩 기도한 후 인도자가 마무리로 기도합니다.

감리교청년회 전국연합회를 소개합니다.

1. 감리교청년회 소개

기독교대한 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는 웨슬리 선생님의 신앙을 본받고 교회의 부흥과 민족과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이를 극복함으로서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청년들이 모인 만남의 장입니다. 1897년 시작된 감리교청년(당시 엡윗 청년회 엡윗은 웨슬리 목사님의 고향 명칭) 운동은 신앙운동에서 시작하여 민족의 독립과 민주화 운동을 넘어 21세기 통일운동, 그리고 생명·평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요청과 부름에 충실하며 한편으론 교회의 양적, 질적 성장에 숨은 일꾼으로서 소명을 다해왔습니다.

2. 감리교청년회의 목적

1)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성결하고 고상한 생활을 함으로써 기독교적 인격을 계발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도록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를 통하여 실천합니다.
2)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각 청년연합회와 연결하여 개체교회 청년회 연합 사업을 지도계획 실행합니다.
4) 세계 감리교 청년운동 및 교단 청년회 전국연합회와 연대하여 기독청년운동과 교회 일치에 협력하며 세계 기독교 청년운동과 보조를 함께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감리교청년회 59회기

1) 주제 : ‘잇다’
2) 주제성구 :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엡 4:3)
3) 전국연합회 임원 :

회장	이봄빛	위원장	한현빈(홍보통신) 함지혜(국제협력) 최건희(사회문화) 임용택(성평등)
부회장	박은진		
부회장	백승훈		
총무	하성웅		
서기	홍주영		

4) 감리교청년회 사업방향

① 연합조직으로서 감리교청년회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밑바탕이 되어주는 지방연합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는 현재 무너지고 있는 지방연합회를 살리는 사업들을 고민해야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② 날이 갈수록 기독교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시대의 청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줄 메시지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리교청년회 전국연합회는 우리시대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들, 교육프로그램들, 교육 자료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③ 시대적 요청과 마주하여 감리교청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응답할 수 있는 건강한 청년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감리교청년회는 사회적 현안들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그것에 응답해야하며 청년들로 하여금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4. 감리교청년회 전국연합회 사업

1) 상시 사업

① 교육사업 : 감리교청년들의 역량과 청년회조직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몸으로 성서읽기, 평화놀이, 청년지도력 훈련, 영어모임, 책모임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나아가 우리시대의 청년들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평화, 통일, 성평등 세미나)을 통해 고민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② 국제연대사업 : 감리교청년회는 감리교청년들을 대표하는 연합체로서 국제연대사업을 진행합니다. 감리교청년회는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감리교청년들의 국제적 역량을 기르고,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③ 국내연대사업 : 감리교청년회는 다양한 단위들의 청년단체와 교류하고 있으며, 사회선교단체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대의 목적은 기독청년들의 힘을 모아 시대적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자 함이며,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나가는데 있습니다. 감리교청년회는 다양한 단위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교회와 사회를 향해 작지만 옹골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④ 조직강화사업 : 현재 감리교청년회가 가장 주력해야 할 사업입니다. 무너진 지방과 연회의 연합회를 세우고, 아직 조직되지 않은 지방을 새롭게 조직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사무국은 조직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별히 본부 및 평신도 단체들

과 협력하여 연합회 조직 재건에 힘쓰고 있습니다.

⑤ 홍보출판 사업 : 홍보출판 사업은 교회와 지방, 연회에 적극적으로 감리교청년회를 알리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홍보 사업과 소식지 발간과 자료집 발간을 진행하는 출판 사업입니다. 감리교청년회는 청년주일 자료집, 체험수련회 공과, 그루터기 소식지 등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 프로젝트 사업

① 감리교청년체험수련회 '내 생애 완전 아름다운 일주일' : 도시청년교회와 농촌교회의 연결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농촌교회를 찾아가 봉사하는 국내선교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7월, 8월 10~15명의 청년들이 한 팀이 되어 농촌의 교회를 찾아가 여름성경학교, 교회보수, 농촌 일손 돕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② 청년주일 : 매년 9월 넷째주는 감리교청년주일로 지킵니다. 5월에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주일이 있듯이 9월에는 청년주일이 있습니다. 이 날은 감리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의 지도력이며 교회의 밑절미인 청년들의 존재와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보는 주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세대의 감리교회에게 청년다움을 심고 예수를 따르는 패기와 열정을 다시금 마음에 아로새기는 주일입니다. 감리교청년회는 청년주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재를 만들고, 이벤트를 열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감리교청년회의 조직재건과 부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위원회 사업

① 성평등위원회 : 여성과 남성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가는 파트너가 되기 위한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위원회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내 성평등을 이뤄내고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입니다.

- 감리교여성연대 참여
- 성평등관련 학습, 세미나

② 사회문화선교위원회 : 감리교 사회문화선교위원회는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기독교의 문화, 교회내의 청년문화를 새롭게 되짚어 보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문화선교사업
- 사회적 이슈, 고난의 현장 방문
- 농촌봉사활동

③ 성서연구위원회 : 성서를 청년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시대정신에 의해 발견되는 청년예수를 만나기 위해 연구하는 위원회입니다.

- 청년교재 및 묵상집 집필
- 청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④ 홍보통신위원회 : 홍보출판, 통신 선교 사업을 진행합니다.

- 소식지 그루터기 발간, 리플릿 발행
- 감리교청년회 페이스북 페이지, 홈페이지 관리

감리교 청년주일 연합예배

"답답한 청년들의 가슴을 뻥~ 뚫어줄 청년주일 연합예배"

청련사이다

일시 : 2016년 9월 25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구로지방 예닮감리교회
강사 : 이진경 목사(협성 대학교 교목)
주관 : 감리교청년회 전국연합회,
감리교청년회 구로지방연합회

감리교청년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청년 단체로써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와 참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것을 사명과 비전으로 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심기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역을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감리교청년들의 지도력 향상을 통하여 지역연합회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감리교단과 한국사회의 건강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은 감청의 새로운 부흥을 선포하고 이웃사랑의 실천, 전인적인 영성훈련과 감리교청년 선교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청년선교의 희망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후원방법

후원계좌 : 142-422823-13-001 우리은행
예금주 :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
CMS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http://myfk.or.kr
작성하신 신청서는 감청메일로 보내주세요 myfk@hanmail.net

펴낸 날 / 2016년 8월 18일 펴낸이 이봄빛 엮은이 감청사무국
펴낸 곳 /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연락처 02)399-2086/2170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3층 청년회전국연합회 사무실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 myfk.or.kr & facebook.com/youthsunday94
전자우편 myfk@hanmail.net